



김영국 선생님의 추억 : 한국 정치학계의 큰별

김 홍 명 |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금년 초 우리 학계는 중요한 한 자산을 잃었다. 평생을 정치학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어려운 한국 정치의 풍토 속에서 청아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김영국 선생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한 채 운명하신 것은 정치 학계는 물론 우리 나라 학계 전체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김영국 선생님은 1957년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강의를 시작한 후 명면하시게 된 금년까지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40여 년 동안 후학들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1958년 전임으로 출발해 서울대 학생처장, 사회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 등 여러 보직을 거쳐, 1995년에는 서울대 정치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정년을 맞으셨다. 이 후 모교에서 한두 강좌를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학문과 인격을 통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학원이 깃잡히는 척박한 시대인 1980년대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협의회를 만들어 우리 나라 학문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한국정치학회장으로서는 그 동안 흔들리고 분파적으로 갈라선 정치 학계를 올바르게 세웠다. 또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년 가까이 한·중 포럼 이사장으로서 한·중 관계의 개선,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

후학들의 서가를 채운 스승의 정치사상사

김영국 선생님은 위대한 스승이셨다. 그가 남긴 수많은 논문과 책자는 모두가 학문적인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후학들의 서가를 메우고 있다. 1956년 “정치학의 대상으로서의 정치 현상”(정치학보, 제1호, 1956), “국가 이론의 변천과 현대 민주주의”(정치학보, 제2호, 1957)를 필두로 1965년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 1945~1965”, “대의 정치와 책임 정치”(고시계, 109호, 1966), “입법부의 합리적 모양, 입법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정경연구, 제3권 9호, 1967), “한말 의병 운동을 통해서 본 정치사상”(사회과학 논집, 제10권 2호, 1968), “한말 민족운동의 개보적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집, 1969), “한국 통일 이후의 질서 문제”(통일 논총 1권 2호, 1970), “당선 지상주의에의 경고”(월간중앙, 36호, 1971. 3), “프랑스 제5공화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정치 권력의 인격화의 문제”(서울신문, 1972. 1. 20), “정치 철학과 정치 과학”(공삼 민병대 박사 회갑 기념 논총 1973) 등, 숭한 대표적 글을 발표했다.

또 1977년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한국정치학회보, 11집)을 비롯하여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론”(한국정치학회보, 17집, 1983), “현대 국가의 기본 문제”(현대 사회와 국가, 1986),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반성”(현대사상, 제 1호, 1989),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적 현재”(1990),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 발전”(1991) 등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50여 편이 넘는 영향력이 큰 글들을 남기기도 했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정치학요강」(1962), 「현대정치학」(1964), 「사회과학개론」(1969), 「민주주의론」(1971), 「정치학개론」(1972), 「신정치학개론」(1980), 「현대정치학의 대상과 방법」(1981), 「정치학개론」(1983), 「이데올로기와 사회 변동」(1986), 「한국정치사상」(1990),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1991) 등이 있다.

특히, 김영국 교수님은 1972년 박사 학위 논문으로서 「레오스트라우스의 정치학논고」를 쓴 이래 “레오스트라우스 정치사상연구”(현대문화사, 1972), “레오스트라우스”(「현대의 사회사상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79), “레오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회복”(서강해럴드, 제14호, 1982. 11. 22), 「레오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서울대출판부, 1995) 등 그가 1958~1959년 석사 학위를 위해 머물렀던 시카고 대학에서의 은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이 탁월하고 특유한 정치 철학자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스트라우스가 고대 철학의 입장에서 평생에 걸쳐 대결하고자 했던 “위기”의 현대사상에 대한 심오한 경향을 일정한 객관적 거리를 두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김영국 교수님의 말년의 사상사적 연구는 아마도 마키아벨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마키아벨리론”(「레오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 제2장)은 마키아벨리의 생애에 관해 과거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그동안 이탈리아 내에서 소개된 자료와 전기를 통해 재구성해 놓았으며,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관해서도 일정한 정도로 새로운 해석을 해 놓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를 위해서 그는 뒤늦게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기

도 했으며, 그 실력은 이탈리아어를 독해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가난했던 천재 학자

김영국 교수님은 소위 천재로 알려진 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경기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졸업도 수석으로 하였다 한다. 그가 천재이면서도 너무 가난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스승 민병태 교수는 그에게 평생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는 실화가 전해지고 있다. “학문과 교양”의 세대에게는 절박한 밥그릇 논리였을 것이다.

김영국 교수님은 1930년 인천에서 태어나 1954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김정유(金正裕) 여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주완(柱完), 창완(昶完) 두 아들과 여식 원경(園景)을 두었다. 처음에는 혜화동 부근의 주택에서 사셨으나 만년에는 평촌의 아파트에 기거했다. 그는 학계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청렴하고 성실하면서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으로 생을 일관했다. 그런 까닭에 가정에서 편안하고 정갈한 아버지로서 언제나 올바르게 성실한 삶을 강조했다.

정치사상사의 전통을 지켜온 커다란 울타리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정치학은 냉전의 한가운데서 있었다. 미국 정치학계는 기존 질서의 비호 아래 새로운 과학의 이름으로 행태주의적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관념과 전통을 완전히 파과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사상과 이념, 체제의 가치 문제는 단순히 기계론적인 양화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사회의 근본 문제가 외면된 가운데 정치학의 대상은 몇몇 경험적 분석에 한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암흑기를

과학의 시대로 포장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한국 정치학계가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뒤늦게 1960년대 이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마치도 이러한 편견과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 과학인 양 정치학의 전통이 일천한 한국의 사회 과학계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국 교수님은 스승인 민병태 교수의 비호 아래 끊임없이 정치 사상의 전통을 지켜 주었고, 또 1970년대 이래 외롭게 한국 정치학계에서 사상의 위치를 연구 분야로서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에게 어떤 경향성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는 단지 사상사 연구가 우리에게 이성의 지평을 넓히고 학문의 역사적 객관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김영국 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울타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향 받아 오늘날 보다 진지하고 비판적인 삶의 좌표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자와 도인의 풍모를 지닌 청렴한 스승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잣대에 비추어 남을 평가하고 외면하는 물화(物化)의 시대에 선생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로부터 무엇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그는 깨끗하고 우아한 학자적 심성과 성실성을 가진 보기 드문 인품의 소유자였다. 탁류에 휩쓸려 자신을 잃은 많은 아까운 인재들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취한 제자들에게도 매서운 비판의 지적을 잊지 않으셨던 그는 누구에게나 가까우면서도 먼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김영국 선생님은 다가오는 영화와 높은 대접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몫을 낮

추어 겸사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기에 그를 가리켜 전주미대사 이홍구 선생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 속에서 현장으로부터 한발 물러서서 역사의 흐름과 대세를 관망하는 학자와 도인의 풍모를 그는 보여 주었다.”고 회고하였다.

필자가 사상에 눈을 뜨고 이를 전공하게 된 데에는 김영국 선생님의 가르침이 컸다. 특히, 비판적 관점에 서서 일정 거리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선생님의 학문적 태도는 필자에게 평생을 두고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학문의 다양성과 교차를 누구보다도 관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하에는 각종의 분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언젠가 우전(雨田) 신호열(辛鎬烈) 선생님이 필자에게 써 준 “청류 격단(清流激湍)”이라는 글귀는 아마도 사상사 분야에서 독특한 학파를 이룬 선생님께 더 적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 본다.

필자는 대학에 들어간 63년 이래 40여 년 간 김영국 선생님과 같은 성품의 은사를 모시는 행운을 가졌다. 대학 생활 도중 한·일 회담 반대 데모가 격렬한 시기에 선생님의 고뇌에 찬 모습을 잊을 수 없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생님의 안내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수에 걸쳐 선생님을 모시고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중국의 사상사 분야를 새롭게 접할 기회도 가졌다. 특히 선생님과 만년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최대의 행복이었다. **필자**

김홍명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 럿거스(Rutgers) 대학에서 ‘자유와 소유권의 역사를 통해 본 시민권: 루소와 마르크스·엥겔스의 연구’로 정치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하버드대 연구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현재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또한 러시아 철학 연구소 원로 연구원, 러시아 인문과학원 원사, 중국 사회과학원 명예 교수로 있으며, 러시아 성피터스버그 대학 명예 철학 박사를 수여 받을 예정이다.